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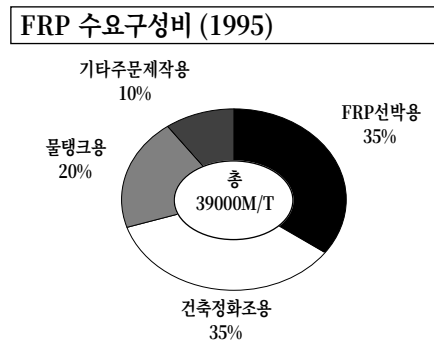
FRP산업 활로모색 시급

95년 수요 3만9000톤 ... 건축경기 하락 및 선박용 생산 부진

95년 건축경기 하락과 더불어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던 FRP 기업들이 새로운 대책을 마련, 불황탈출에 부심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FRP는 다른 플라스틱과 달리 강도면에서 우수하고 내식·내열성이 뛰어난 장점을 지녀 매년 20%이상 신장이 기대됐으나, 95년 수요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20% 성장에 훨씬 밑도는 11.3%에 그쳤으며, 생산도 3만9000톤으로 94년 3만5000톤에 비해 11.4% 성장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FRP 수급추이			
(단위: M/T, %)			
구 분	1994	1995	
	수량	수량	증감률
생 산	35,000	39,000	11.4
수요 내수	34,600	38,500	11.3
수출	400	500	25.0
계	35,000	39,000	11.4



내수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95년 정화조 생산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건축경기 하락에다

남해안 적조, 기름유출 등 어민소득 감소로 인한 선박용 FRP생산이 부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원재료인 유리섬유가격의 인상도 FRP 내수시장 성장부진에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FRP는 다양한 용도와 작업성에도 불구하고 제작공정이 노동집약적이고 주원료인 UPR의 악취와 유리섬유가 인체에 해로워, 국내에서는 3D업종중의 하나로 꼽히며 점차 동남아시아국가로 이전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업계는 FRP 판매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및 자동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애경화학을 비롯 기존제법과 다른 몰딩기법을 이용한 새로운 공법인 RTM기법을 도입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으며, 품질면에서도 기존의 저급 Grade에서 고급 Grade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등 FRP시장의 활로를 찾고 있다. 또한 일부 외국자동차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FRP 자동차 용범퍼 생산에 나서 쌍용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부기업들의 고부가가치화와 자동화는 FRP시장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그러나 95년 불황으로 인하여 일부 중소기업들의 부도사태가 속출하는 등 경영악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FRP 수요는 선박용이 35%, 건축 정화조용 3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물탱크용으로 20%, 기타 주문제작에 10%정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